

로코코시대의 남성 속옷에 관한 고찰

金 珠 愛

진주전문대학 가정과 부교수

A Study on the Men's Underclothes of Rococo Ages

Ju-Ae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Chin-Ju Junior College

目 次

Abstract

I. 서 론

II. 사회·문화적 배경

III. 속옷의 특징과 변천

IV. 속옷의 기능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Male underclothing during this period preserved in the shirt its former qualities though somewhat diminished. The habit of leaving much of the waistcoat unbuttoned to display the fine quality of the shirt was more than evidence of social ranks : it appears to have had its attractions to the other sex.

But in other respects man's underclothing was sinking into obscurity. This was due, in a great measure, to the closer fit of his suit, designed to exhibit the shape of his legs in breeches and stockings, leaving little opportunity for the display of garments beneath.

With the latter part of the eighteenth century man's underclothing ceased to serve for sex attraction, a function it has never regained, while continuing -in the shirt front and cuffs- to indicate class distinction, until, in modern times, that too has disappeared.

The term 'smart' was coming into vogue to indicate the well-dressed man, and for at least a century after, the word implied tightfitting garments which, of necessity, reduced underclothing to a very subordinate function, so that only the shirt front survived for display purpose.

Artificial calves was introduced by the Macaronis its purpose was to accentuate the captirating shapelines of the calf of the leg appearing below the tight breeches of the period.

I. 서 론

복식에 관한 사적 고찰에서 여성복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남성복에 대한 고찰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생활

양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의생활 가운데 여성복 못지 않게 남성복도 색상, 기능 등 모든 면에서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성복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복에 관한 史的 고찰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성복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겉옷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속옷에 관한 고찰은 그다지 많지 않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속옷은 피부에 직접 접촉되어 있고, 겉옷 속에 착용되는 것으로써 가능한한 피부와 같은 기능을 겸비해야 하며 방한, 방서 및 위생 등의 목적을 가지면서 쾌적한 착용감이 필요하다. 속옷은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 외에 장식적이고 심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또한 의복의 완전한 실무엿은 속옷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관계로 겉옷 못지 않게 속옷의 역할은 복식 그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속옷이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속옷에 관한 연구는 겉옷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다. 속옷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여성의 속옷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으며¹⁾²⁾³⁾ 남성의 속옷에 관하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고대를 중심으로 한 시대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⁴⁾ 및 중세를 중심으로 한 남성 속옷에 관한 연구⁵⁾를 보고한 바 있다. 고대에는 속옷과 겉옷이 같은 성격을 가졌고, 중세에는 속옷이 죄의식과 연관되었으며 노출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세에서 근세로의 변화와 함께 속옷은 비약적으로 진보를 하게 되었다⁶⁾. 근세 초기의 르네상스시대를 통하여 속옷은 노출되면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르네상스까지는 남녀 속옷의 기능이 거의 동일하였으나 바로크시대에는 남녀 속옷의 기능이 분리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본고에서는 로코코시대의 남성 속옷에 대하여 그 종류 및 특징을 파악하여 남성 의복에 관한 완전한 이해와 고찰을 돕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복식학 문헌 및 속옷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로코코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속옷과의 상호 관계, 그리고 로코코시대의 속옷의 변천에서 속옷의 유형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그림을 삽입하여 속옷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나타내었다.

II. 사회·문화적 배경

1711년에서 1790년에 걸친 로코코시대는 바로크시대의 거대하고 화려한 복식에서 로코코 스타일의 섬세하고 우아한 곡선미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로코코의 예술양식은 먼저 프랑스의 살롱을 중심으로 하여 번져나갔으며 경제적 생활양식의 변화가 장식미술 분야에 적용되어 세련된 예술성이 나타났다. 로코코양식은 신고전주의와 융합되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각기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18C 말기에 신고전주의가 예술양식을 지배하면서 의복의 실무엿과 장식이 단순한 고전미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사상적으로는 르네상스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한 인간중심 사상이 17C 말기부터 18C에 걸쳐서 계몽주의로 확산되어 이성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풍조에서 형성된 복식 감각은 서유럽 모드를 크게 지배하게 되어, 의상미의 개념은 이전과 같이 권력표시를 위한 호화로움이나 정연한 규칙이 아니었다. 대신 환상적이고 경계음이 넘치는 모양이 남녀복식을 특징지었다.

18C 중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해상 무역에서 대권을 잡아 발전을 거듭하였다. 네덜란드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쇠퇴하였고 이탈리아도 유럽 열강의 침입에 의해 점차 약화되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유럽 복식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프랑스는 루이 14, 15, 16세로 이어지는 절대군주제의 정치체제 밑에서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1789년에는 대

- 1) 金珠愛,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慶尙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5.
- 2) 吳京淑,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誠信女大 석사학위논문, 1985.
- 3) 鄭順姬,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研究, 淑明女大 석사학위논문, 1986.
- 4)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제5권 제4호, 1997, pp. 12-31.
- 5)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제6권 제1호, 1998, pp. 136-148.
- 6) 日本ポテティアフツ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 113.

혁명이 일어났다. 이후로 유럽패션의 중심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갔다. 프랑스는 루이 14세 통치기간에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에서 막대한 재원을 소모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나 루이 15세의 궁정과 귀족계급의 쾌락추구의 성향이 프랑스 복식을 더욱 매혹적이고 우아한 것으로 발전시켜 전 유럽이 프랑스 모드를 따랐다.

또한 로코코시대에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중동이나 극동과 무역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페르시아·인도·중국에서 직물을 수입해오고 동양문화에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동양의 건축·가구·도자기들이 유럽예술가와 장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혁명의 결과로 생긴 유희노동력으로 산업혁명의 시초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전 세기부터 추진되어 오던 중상주의 정책이 해외무역의 발전과 함께 이 시대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또 18C 복식이 화려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대의 직물공업을 주로 한 산업발전의 힘이 컸다. 루프와 리본 직기는 17C에 발명된 이래 1765년경 사실상 자동화되었다. 로코코 의상에는 넘칠 정도의 리본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화려하고 감각적인 누앙스와 변화를 더해 주었다. 특히 레이스는 속옷에서 필수적인 장식이었으며⁷⁾ 편성기의 개량은 바지에 직접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III. 속옷의 특징과 변천

로코코시대의 남성 속옷에 있어서 셔츠는 이전의 특징이 다소 사라졌으나 기본적인 것은 유지되었다. 셔츠의 우수한 품질을 노출시키기 위해 웨이스트코트의 단추를 채우지 않는 습관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남성복의 경우에 슈트가 매우 밀착되고 다리형태를 과시하기 위해 브리취즈와 스타킹 상태로 디자인됨으로써 겉옷 속에 착용된 것을 과시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큰 차이점으로 인하여 남성 속옷은 로코코시대를

동하여 노출과 은폐라는 예메모호한 복합적인 면을 나타내었다⁸⁾.

18C 말기에 군대에서 스마트(smart)한 장교들이 스테즈(stays)⁹⁾를 착용함으로써 'smart'란 용어는 성장(盛裝)한 신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행되었다. 19C에 이 용어는 속옷의 종속적인 기능이 감소되어 밀착된 의복의 의미로 이용되었으므로 셔츠의 앞부분만이 과시되기 위해 남겨졌다. 그러나 여성복의 경우에 이 용어는 남성과는 다른 의미로 잘 재단된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몸에 밀착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의복에 있어서 우아함은 소재의 고가성 보다는 장식과 흰 속옷의 많은 착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서 복장문화의 진보를 나타내었다¹⁰⁾.

무더운 여름의 일상적인 저녁모임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 신사는 나이트캡, 나이트가운만을 착용하였으며, 이때 나이트가운 속에는 브리취즈를 착용하지 않은 상당히 획기적인 패션을 나타내었다.

로코코시대에 이용된 남성 속옷의 종류는 셔츠, 드로워즈, 웨이스트코트, 나이트클로즈, 장만자 페드, 폴셋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특징과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셔츠(Shirt)

로코코시대의 셔츠는 이전의 기본적인 형태를 계속 유지하였다. 셔츠는 각이 진 단부분과 앞트임으로 구성되었으며 뒤 프랩은 앞보다 길었다. 또한 풍성한 몸통과 소매 및 목밴드로 구성되며 미세한 큰 프릴(lawn frill, Fig. 1)이 부착되었다. 셔츠는 오염으로부터 피부 보호와 더러움 및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매일 세탁된 속옷으로써 그 기능을 계속하였다¹¹⁾.

셔츠의 앞트임은 짧은 자봇(jabot : 중앙트임의 주름장식된 경계)으로써 가장자리되었고 평평하거나 스테인커크(steinkirk)로 꼬여진 크라밋(cravat)에 의해 감추어졌다. 1710년경부터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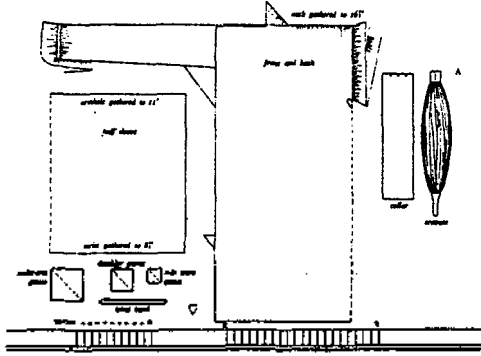
7) 鄭興淑, 서양복식문화사, 敎文社, 1997, p. 239.

8)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 72.

9) 폴셋의 초기 명칭.

10)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991, p. 49.

11) Alison Carter, *Underwear*, B. T. Batsford Ltd., 1992, p. 29.



<Fig. 1> Shirt, 1700-1810.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p. 82.



<Fig. 2> Chitterlings, 1781.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Eighteenth Century, p. 254.

수가 놓여진 장식적인 자밧은 보여주기 위해 노출되었다. 웨이스트코트의 단추를 채우지 않은 틈사이로 자밧이 들출되어져 크라밧은 불필요하

게 되었다. 자밧은 치트롱(chitterlions)이나 치트링(chitterlings)¹²⁾으로 알려졌으며(Fig. 2) 넓이와 길이면에서 다양하였으나 1760년 이후에 웨이스트코트의 단추를 높게 채움으로써 자밧의 노출이 감소되었다. 기본적으로 셔츠의 목경을 과시한 자밧은 비실용적이고 불편하였으며 쉽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밧의 품질과 크기는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였다. 이 모드와 함께 크라밧은 목주위를 두른 수평의 넥 크로스로 되었으며 처음에는 좁았으나 후에 스톡(stock)으로 되었다. 이 시기 말엽에 스톡은 초커(choker: 폭넓은 넥타이 목도리)로 넓어졌으며 비클로 채우거나 뒤에서 묶었다¹³⁾.

이전에 매우 좁았던 목밴드는 높아져서 셔츠에 부착된 칼라로 발전되었으나, 이 경우는 보통 넥 크로스(neck cloth)에 의해 감추어졌다. 목밴드가 좁은 경우에는 한 개의 단추로 채웠으나 칼라가 부착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단추로 구성되었으며(Fig. 3), 단추는 도셋 스레드(Dorset thread)¹⁴⁾ 형태였다. 넥 크로스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단추 대신에 목밴드의 단추 구멍을 느슨하게 리본형태로 묶었다(Fig. 4).

셔츠는 바깥쪽으로 정교한 주름이 잡힌 풍성한 비숍스매와 단추를 채운 좁은 손목밴드와 러플로써 구성되었다¹⁵⁾. 레이스와 캄브릭을 소재로 한 러플에는 자수가 놓여졌으며 크기가 다양하였으나 이 시기 말엽에 더욱 작아졌다.

18C 전기에 트여진 큰 코트-커프스를 통해 셔츠 소매의 아랫부분이 들출되었으나 후에 코트 소매가 밀접하게 되자 러플만이 노출되었다. 18C 전기 동안 코트 커프스는 옆에 슬릿이 있었으며, 그 틈을 셔츠의 러플로 장식하였다. 러플은 착용자가 상류층임을 나타내었다. 노동자의 셔츠는 자밧과 러플 장식이 없었으며 실용적이고 거친 재료를 이용하였다. 러플은 분리되어 세탁이 가능하였으나 자밧은 분리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12)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1976, p. 45, 18C와 19C에 걸쳐 셔츠 앞부분에서 아래로 되어있는 프릴에 대한 일반 용어.

13)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Eighteenth Century*, Faber & Faber, 1970, p.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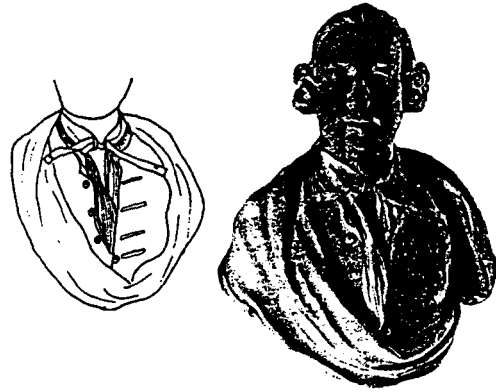
14) Cunnington & Beard, 위의 책, pp. 65-66, 1700년대 부터 속옷에 사용된 단추로써 흰 면실이 중심을 향해 사방으로 퍼지면서 청동 철사링을 덮어 평평하게 만들어짐.

15) Marybelles S. Bigelow,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1979, p. 198.



<Fig. 3> Open neck shirt, 1713.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 Faber, p. 51.

멋쟁이들은 많은 셔츠를 필요로 하여 1주일에 20벌의 셔츠를 착용하였으며 셔츠의 앞은 보석으로 풍부하게 장식되기도 하였다¹⁶⁾. 일상적으로는 가발 대신에 실내 잤을 착용하였으나 정장의 경우에는 가발을 착용하였고 똑바로 선 칼라는 넥크



<Fig. 4> Shirt, ribbon threaded at neck, 1735.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 Faber, p. 52, Dover, p. 79.

로스로서 감추어졌다. 1780년경 이후에 스테인커리는 사라지게 되었다.

셔츠 소재로는 보통 고운 무지의 린넨이 이용되었고 18C 초기에 면과 린넨의 혼방직물이 도입되었으며, 품질이 우수한 홀랜드와 같은 린넨은 하녀들이 만든 반면에 품질이 조악한 대마는 가정에서 부안이나 딸이 만들었다¹⁷⁾



<Fig. 5> Flannel undergarment, 18C. *Historic Costume*, p. 229.

16) 青木英夫, 앞의 책, p. 49.

17) Alison Carter, 앞의 책, p. 29.

18C와 19C 초기를 통해 스코틀랜드에서는 술기없는 셔츠도 만들어졌다. 초기에 마카로니스의 셔츠는 Trolly 레이스¹⁸⁾로써 뒤집어진 주름없는 소매로 구성되었다¹⁹⁾. 선원들은 체크무늬 셔츠를 즐겼으며 1793년경에 부상당한 군인에게는 프란넬 셔츠(Fig. 5)가 공급되기도 하였다.

2. 드로워즈(Drawers)

드로워즈는 무릎에서 묶여진 짧고 풍성한 형태로써 허리를 보통 끈으로 조였으나 드물게는 단추로써 조였다(Fig. 5, a)²⁰⁾. 브리퀴즈는 분리되어 세탁이 가능한 라이닝(linings)과 함께 착용되었으며, 브리퀴즈와 라이닝 속에 짧은 드로워즈를 착용하였다²¹⁾. 라이닝은 드로워즈를 대신하거나 또는 부가적으로 계속 착용하였다²²⁾. 세탁이 가능한 드로워즈를 나타내는 라이닝이라는 용어는 19C 말기까지 숙련공에 의해 계속 이용되었으며 브리퀴즈의 허리벨트나 라이닝 속에 돈을 넣어 꿰매기도 하였다. 장교들은 면으로 된 긴 라이닝을 전투용의 트라우저용으로 착용하였다.

1770년경 브리퀴즈가 신체에 매우 밀착됨에 따라 드로워즈도 더 짧고 타이트해졌다²³⁾. 이로써 걸음의 영향이 속옷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비록 의상이 짧아지기는 하였으나 항상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1750년경 더운 여름에 셔츠와 긴 린넨 드로워즈만을 착용한 경우도 있었다.

드로워즈의 재료는 보통 린넨이었으나 18C 말기에는 면 프란넬(Fig. 5, b)이나 모로 된 스토킨넷(stockinette)^{24, 25)} 외에 가죽도 이용되었다.

18C에 드로워즈는 한때 지녔던 성적 매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즉 한 세대의 성적 매력의 고안

물은 상스러움 혹은 비효율성 때문에 다음 세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나이트클로즈(Nightclothes)

린넨 나이트셔츠는 러플이 약간 길고 풍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데이셔츠와 유사하였다. 이것은 넓고 평평한 턴드다운 칼라와 2개의 단추로 된 목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목트임은 데이셔츠보다 길고 커프스가 없었으며 짧은 프릴과 옆 트임으로 구성되었다.

나이트클로즈는 종류층에서도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밤에 나이트 캡 착용시는 가발을 벗었다²⁶⁾. 17C에 비하여 풍성한 나이트캡은 터번과 비슷한 형태였으며 나이트가운과 같은 재료인 모, 다마스커, 벨벳 등이 이용되었다²⁷⁾. 잠자리에서 린넨이나 얼은 색상으로 자수가 놓여진 나이트캡이 항상 착용되었다. 이 경우 나이트 캡은 술장식이 없는 험평한 형태였다. 소모사 나이트캡은 단추가 턱 아래에서 채워졌고 단지 보온을 위하여 착용되었으므로 일반적이지 않았다.

4. 장편지 패드(Artificial calves)

1732년 경의 Gentlemen 잡지에 의하면 장편지 패드가 18C 초기부터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미 17C부터 멧쟁이들이 다리에 스타킹과 함께 인공 패드를 착용하였다²⁸⁾. 1770년경부터 유행의 주도자인 마카로니스(Macaronis)에 의해 남성의 근육을 능률하게 형성하는 패드인 이 악세사리가 유행되었다. 이 당시 남성 다리는 성적 매력의 특징이었으므로, 타이트한 브리퀴즈 속의 다리 형태를 바꾸었다²⁹⁾. 홀쭉한 다리를 가진 남성

18)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p. 277. 18-19C에 이용된 조약한 Flanders 보빈 레이스, 즉 패틴이 두꺼운 실이나 여러 개의 두꺼운 실로써 된 평평한 짧은 가장자리로써 외형선을 이룸.

19) Norah Waugh,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Faber and Faber, 1977, p. 107.

20)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1995, p. 228.

21) Jennifer Ruby, 앞의 책, p. 25.

22) Alison Carter, 앞의 책, p. 29.

23) Valerie Cumming, 廣瀬尚美 譯,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p. 51.

24)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p. 275. 18C-19C에 나이트 재료와 유사한 그물구조를 가진 세밀한 woven woolen textile로서 타이트한 판팔롱에 많이 이용되며 보통 견으로 만들.

25)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1990, p. 76.

26)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1987, p. 313.

27) Joan Nunn, 앞의 책, p. 82.

28) C. Willett and Phyllis Cunnington, 앞의 책, p. 63.

29)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p. 34.



<Fig. 6> Man's toilet, 1796-180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 81.

은 흰색의 견으로 된 스타킹 속에 양피지로 만든 인조 장딴지 패드를 착용하고 가죽끈으로 잡아매어 남성 장딴지의 매혹적인 형태를 강조하였다³⁰⁾ (Fig. 6). 즉 가죽 패드는 양피지, 패드, 동여매는 끈으로 구성되었다³¹⁾.

남성은 노출된 셔츠 앞이나 콜렛 외에도 장딴지 패드를 이용함으로써 로코코시대에 남성 속옷의 기능이 선정적인 용도에 많이 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웨이스트코트(Waistcoat)

웨이스트코트는 길에 착용된 코트의 형태에 따라 변하였다. 웨이스트코트의 길이는 1720년대부터 시작하여 1780대까지 계속 짧아져서(Fig. 10) 처음에는 장딴지길이였으나 나중에는 허리 바로

아래길이로 발전되었다³²⁾. 초기에 웨이스트코트는 코트와 조화되는 펫펫한 플레이로 된 것 외에는 이전 그대로였으며 브로케이드 또는 자수된 브로케이드나 새틴을 계속 이용하였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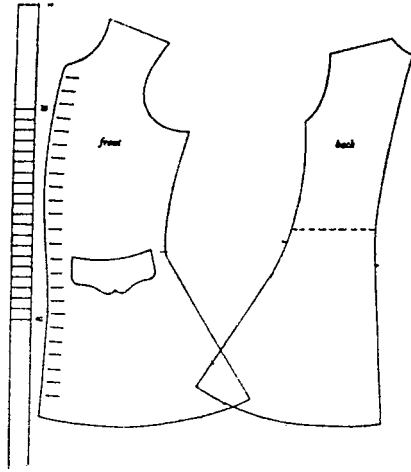
1760년대에는 웨이스트코트는 칼라가 부착되어 코트 칼라의 높이와 보조를 이루었으며, 소매 없이 전체길이가 짧았고 부분적으로 단추를 채우지 않았다. 후에 코트가 더욱 짧아지자 웨이스트코트도 더욱 짧아졌으며 10년내에 포켓이 사라졌다³⁴⁾.

1780년경부터 웨이스트코트는 영국의 소매없는 웨이스트코트로부터 유래된 질레로 대체되었다³⁵⁾. 이것은 허리까지 올 정도로 짧았으며 다리 쪽으로 상당히 직선적이었고 테일이나 스커트부분이 없었다. 웨이스트코트와는 달리 질레의 앞과 뒷부분은 동일한 재료였으며 어깨 뒷부분과 소매가 없어서 재료가 절약되었다. 하프 웨이스트코트와 하프 질레는 질레 베스트(gilet-vest)나 베스트론(veston)으로 불리었다. 곧 이어 베스트론이 웨이스트코트를 대신해서 질레 베스트와 질레에



<Fig. 7> White satin waistcoat, 1720.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p. 104.

30) Jennifer Ruby, 앞의 책, pp. 24-25.
31)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앞의 책, p. 261.
32) Marybelles S. Bigelow, 앞의 책, 1979, p. 198.
33) Doreen Yarwood, English Costume, B. T. Batsford, 1954, p. 174.
34) Doreen Yarwood, 위의 책, 190.
35)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1963, p. 355.



<Fig. 8> Waistcoat, 1720-40.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p. 76.

모두 적용되었다³⁶⁾. 배스톤은 매우 짧은 몸판과 좁은 포켓을 가지며 새롭게 유행된 웨이스트코트로써 레딩코트 속에 착용되었다³⁷⁾. 또한 1780년대에는 안감이 부착되어 이중으로 구성된 웨이스트코트가 프록코트와 함께 착용되었다³⁸⁾.

웨이스트코트 소재로는 나사, 서지, 드라젯(drugget)³⁹⁾, 파두아 서지(padua serge)⁴⁰⁾, 가죽 등이 이용되었고 승마용의 웨이스트코트는 더블 단추로 된 앞부분을 가지며 듀로이(duroy)⁴¹⁾, 캄릿(camlet)⁴²⁾, 키크브(kincob)⁴³⁾, 거위 가죽 등이 소재로 이용되었다. 웨이스트코트의 앞과 뒤 스커트부분은 견을 이용하였으며 등부분은 울랜드를 이용하였으나(Fig. 8) 소매 상부와 뒤부



<Fig. 9> Waistcoat, 1720-1730.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Eighteenth Century*, p. 68.

분을 열악한 재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Fig. 9). 결혼용으로는 흰색의 견 웨이스트코트를 이용하였다⁴⁴⁾(Fig. 7). 보온을 위해 플란넬을 소재로 한 언더 웨이스트코트가 도입되었다⁴⁵⁾(Fig. 5, c). 웨이스트코트 속에 착용된 언더 웨이스트코트는 웨이스트코트 위로 목부분이 약간 노출되었다⁴⁶⁾. 웨이스트코트는 재료면에서 겉옷과 조화되었으며 소매가 없는 웨이스트코트는 겉옷없이 편안하게 캐주얼웨어로써 착용되었다⁴⁷⁾. 마카로니스는 줄무늬로 된 웨이스트코트를 착용하였으며⁴⁸⁾ 노동층은 코트와 웨이스트코트가 짧았고 커프스가 없는 소매로 구성되었다. 웨이스트코트 단추는 코트 단추보다 작았고, 코트 단추는 코츠(coats)

36) Carl Kohler, 위의 책, pp. 356-357.

37) Waugh Norah, 앞의 책, p. 89.

38) Valerie Cumming, 廣瀬尚美 譯, 앞의 책, p. 50.

39) 18C에 이용된 무지나 줄이 진 매우 가늘고 조밀한 소모직물, 모나 모와 견의 혼용직물.

40) 안감용으로 이용된 견 서지이며 18C에는 주로 가난한 여성용 까운 소재로 이용됨.

41)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p. 254, 18C에 이용된 조악한 모직물.

42) 처음에는 모헤어였으나 후에 여러가지 혼용직물로 발전, 18C에는 모, 견, 헤어(hair)의 혼용직물로써 이용됨.

43) 18C에 이용된 인디언 gauze로 보통 금사나 견사로 자수장식이 됨.

44)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앞의 책, Faber & Faber, 1970, p. 72.

45) Alison Carter, 앞의 책, p. 29.

46) Ribeiro Aileen and Valerie Cumming,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B. T. Batsford Ltd, 1989, p. 159.

47)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앞의 책, p. 229.

48) Norah Waugh, 앞의 책, p. 189.



<Fig. 10> Waistcoat, 1790. 20000 years of Fashion, p. 304.

라 붙였으며 재단사는 웨이스트코트 단추를 브레스트 버튼(breast button)이나 브레스츠(breasts)로 붙였다⁴⁹⁾.

로코코시대에 이용된 웨이스트코트의 재료는 바로크시대에 비하여 상당히 다양하였으며,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열악한 소재를 사용한 특징이 있었고 18C를 통해 웨이스트코트에 다른 명칭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콜 셋(Corset)

이 당시에 멋쟁이는 레이스로 장식된 콜셋을 이용하였는데 레이스는 상부와 하부에 부착되며 뒤에서 끈으로 조였다. 형태를 조절하기 위하여 고래뼈로 만든 형태를 이용하였다. 그 당시 콜셋을 사용하는 것은 남성에게 매우 피로운 일이었다. 18C 살롱에서 콜셋을 매우 짙게 졸도하는 경우에, 이 환자는 남성 콜셋을 폐지하기를 바랬

을 정도였다⁵⁰⁾. 그러나 콜셋으로 졸도하는 듯한 연약한 남성이 여성 사이에서 애호되었던 시대였으므로 오히려 이 약함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즉 게이·보이적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받았으므로, 환자의 충고는 무시되고 연약한 남성을 돌봐주고 하는 분위기가 여성 사이에 높아졌다. 즉 여성은 여성다움보다도 호리한 사랑스러운 소녀적인 복장이 선호되었고 남성은 웅석부리는 듯한 소년의 복장이 유행하였다.

IV. 속옷의 기능

바로크시대에 웨이스트코트의 열려진 틈을 통하여 노출된 셔츠는 계층 구별의 표시로 여겨졌으나, 바로크시대에는 계층 구별보다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져서 선정적인 용도로 이용되었다. 이로써 같은 셔츠 노출 상황이라도 시대에 따라 다른 기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남성 속옷은 노출되어 과시되었으나 후기에 다리형태를 과시한 디자인이 유행되고 슈트가 밀착되어 속옷을 과시할 수 없게 되어졌다. 즉 노출과 비노출이라는 차이점으로 인하여 같은 로코코시대라도 전기 후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중적인 면을 지녔다. 남성 속옷은 18C 후기에 성적 매력이 사라졌으나 셔츠의 앞과 커프스는 계층구별을 유지하였다. 또한 남성의 장딴지를 강조한 장딴지 패드와 허리를 조이기 위한 콜셋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짐으로써 선정적인 용도로 이용되었고 비실용적인 자복은 품질과 크기에 따라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였다. 특히 로코코시대에는 남성 속옷의 기능 중에서 선정적인 용도로써 많은 품목이 이용되었으며, 18C 후기에 남성 속옷은 성적 매력의 기능이 사라져서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셔츠의 앞부분과 커프스는 계층구별을 계속 유지하였다.

V. 결 론

로코코시대에 이용된 남성 속옷의 특징과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9)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ham, 앞의 책, Faber & Faber, 1970, p. 210.

50) 青木英夫, 앞의 책, p. 50.

로코코시대의 셔츠는 이전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다. 웨이스트코트의 단추를 열어 셔츠의 우수한 품질을 노출시킴으로써 매력적으로 나타났다. 바로코시대에는 노출된 속옷이 계층구별을 나타내었으나, 로코코시대에는 성적 매력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비실용적인 자복은 품질과 크기에 따라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노출되어 과시되었던 남성 속옷은 후기에 다리형태를 과시한 디자인이 유행되고 슈트가 밀착되어 속옷을 과시할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 즉 노출과 가림의 큰 차이점으로 인해 남성 속옷은 불명료하게 이중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18C 후기에 남성 속옷은 성적 매력이 사라져서 그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셔츠의 앞과 커프스는 계층구별을 계속 유지하였다.

18C 말기에 smart란 용어는 성장(盛裝)한 신사를 의미하였으나 19C에는 밀착된 의복의 의미로 이용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잘 제한된 것을 의미함으로써 같은 용어라도 시대와 성(性)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나타났다.

새로운 품목인 라이닝은 드로워즈를 대신하거나 또는 부가적으로 착용되었다. 1770년경 브리취즈가 신체에 밀착됨에 따라 드로워즈도 더 짧고 밀착되어져 로코코시대에 겉옷의 변화가 속옷에도 반영되었다.

멋쟁이들은 남성 장딴지의 매혹적인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장딴지 패드를 이용하여 성적 매력을 나타내었고 레이스가 부착된 콜셋도 착용하였다. 웨이스트코트는 1760년대에 칼라가 부착되었고 1720년대부터 1780년대 까지 계속 짧아져서 허리길이가 되었다. 1780년대부터 웨이스트코트 용어로서 질레나 배스톤이 적용되었다.

로코코시대 초기에는 남성 속옷 중에서 셔츠가 노출되었으나 후기에 이르러 슈트와 브리취즈가 밀착됨으로써 속옷의 노출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같은 로코코 시대라도 전·후기에 따라 노출과 비노출이라는 이중적인 면을 지녔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시대에 따라 속옷의 기능이 달랐고 같은 용어라도 시대와 성에 따라 다른 개념이 적용되었다. 한 세대의 성적 매력의 고안물은 상스러움이나 비효율성으로 인해 다음 세대에

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겉옷의 변화가 속옷에도 적용되었다. 바로코시대에 남성 속옷은 주로 계층구별을 위하여 착용되었으나 로코코시대에는 남성 속옷이 계층구별보다는 선정적인 용도로서 많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金珠愛,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慶尙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5.
2. 金珠愛, 시대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 (I). 服飾文化研究, 제5권 제4호, 1997, pp. 12-31.
3. 金珠愛, 시대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 (II). 服飾文化研究, 제6권 제1호, pp. 1998, 136-148.
4. 吳京淑,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誠信女子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5.
5. 鄭福姬,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6.
6. 申尙玉, 西洋服飾社, 修學社, 1995, pp. 216-229.
7. 鄭興淑, 서양복식문화사, 敎文社, 1997, pp. 234-243.
8. 日本ボテイファッ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 113.
9.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991, pp. 46-51.
10. Alison Carter, *Underwear*, B.T. Batsford Ltd., 1992, pp. 28-29.
11.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pp. 387-408.
12.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p. 68-82.
13.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1981, pp. 48-55.
14.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eventeenth Century*, Faber & Faber, 1970, p. 63.
15.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Eighteenth*

- Century, Faber & Faber, 1970, pp. 13-265.
16. Carl Ko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1963, pp. 332-359.
17.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1976, pp. 45-283.
18. Doreen Yarwood, *English Costume*, B. T. Batsford, 1954, pp. 174-198.
19. Elaine Benson John Esten, *Unmentionables*, Simon & Schuster, 1996, pp. 108-109.
20.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1987, pp. 308-331.
21. James Laver, *Costume*, Hawthorn, 1963, pp. 127-140.
22. Jennifer Ruby, *Underwear*, Batsford, 1996, pp. 6-25.
23. Joan Nun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1990, pp. 75-84.
24. Marybelles S. Blgelow,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1979, pp. 197-198.
25. Naomi Tarrant, *The Development of Costume*, 1996, pp. 94-98.
26. Norah Waugh,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Faber and Faber, 1977, p. 70-110.
27.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1995, pp. 228-232.
28. Ribeiro Aileen and Valerie Cumming,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B. T. Batsford Ltd, 1989, pp. 132-159.
29. Valerie Cumming, 廣瀬尚美 譯,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pp. 48-51.